북아일랜드에서부터 내쉬빌까지: 어느 청년 자원봉사자(YAV)의 신앙 여정

애슐리 맥펄-어윈 목사 애슐리 맥펄-어윈 목사는 만약 그녀가 그녀의 고향인 북아일랜드에 머물렀다면, 그리고 특히 그녀가 청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찾지 않았다면 오늘 장로교회의 목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YAV"라고 부름과 함께 줄여서 "YAVs"의 역할을 하는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북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은 꽤 큰 도약처럼 보이지만, 해외에서 온 청년들이 YAV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애슐리는 자신의 부름을 찾아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미국장로교 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비자를 신청하도록 권했고, 나머지는 그들이 알아서 하였습니다!

애슐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방법을 찾던 중 내슈빌에 있는 제2장로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교회는 내쉬빌 주현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비영리 단체들과 1년 간의 봉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1 년 안에 그녀는 북 아일랜드에서 내쉬빌로 이주하여 도시에서 가장 낮은 졸업률을 가진 고등학교에 기반을 둔 "최상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했습니다. 최상층은 더 많은 학생들을 졸업시키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지원서 등 고등학교 졸업 후 일어날 일들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애슐리는 여전히 그녀가 봉사했던 많은 학생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YAV 프로그램은 오순절 헌금의 선물을 통해 부분적으로 지원되며, [지금은 목사인] 애슐리처럼 교회 내에서 평생 사회봉사 및 지도력을 이끌어 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청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내재된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YAV 봉사가 끝난 후, 애슐리는 북 아일랜드로 돌아와 신학교 선택을 위해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내쉬빌로 돌아와 밴더빌트 대학에 다녔고 사춘기 소년들을

위한 그룹 홈을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대처하는 여성들을 위한 채플린 역할을 하면서 임상 목사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으며 롱아일랜드의 세타우켓 장로교회에서 지역사회 사역 담당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YAV 프로그램은 교회와 지역 사회에 내재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들은 제게 진정한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와 기회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든 동네 노숙자 쉼터를 방문하든 간에 목회의 중심은 진실성에 있습니다. 제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로 우리의 장로교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여 애슐리와 같은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믿음과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주님과 주님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의욕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자아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